日 템플스테이 '슈쿠보' 참가자 3년 새 3배

닛케이신문, 고야산 슈쿠보 선풍적 인기 조명

승려와 신도, 관광객 위한 숙소
수행 · 명상 등 불교문화체험 인기
1만9000명→5만6000명 3배 증가
숙박자 60% 외국인…만족도 높아



고야산 혜광원은 구카이 사당이 있는 오쿠노인을 심야에 둘러보는 나이트 투어를 진행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혜광원 슈쿠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본 한난대 학생 및 참가자들 모습. 사진출처=일본 한난대학교 홈페이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야산(高野山)의 슈쿠보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슈쿠보는 승려와 신도들을 위한 숙소로 이곳에 머무는 동안 관광객들이나 신도들은 수행 등 불교문화를 체험한다. 이른바 일본판 템플스테이다. 이러한 슈쿠보 이용자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약 3배 증가했단 소식이다.

고야산은 일본 와카야마현(和歌山県)에 있는 해발고도 약 1,000m의 산들을 두루 일컫는 말이다. 이마키봉, 호슈봉, 하치부세산, 벤텐산, 고야산, 덴지쿠산, 요류산, 마니산 등 8개 봉우리에 둘러싸인 분지 지역이다. 이곳은 연꽃이 핀 형상의 지형이라 하여 예로부터 불교의 성지로 전해지고 있다. 고야산 내엔 약 117개 사원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헤이안시대인 819년 홍법대사 구카이(空海)가 수행한 곳이자 고야산진언종이 태동한 곤고부사(金剛峯寺)가 일본불교 성지로 일컬어진다.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다.

이러한 만큼 일본불교를 직접 체험하길 원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 그중에서도 수행, 명상, 사찰음식 등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슈쿠보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고야산의 슈쿠보가 외국인 관광객과 일본 내 불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몇 달 후까지 예약이 꽉 차있다고 5월 12일 보도했다. 참가자 수요가 늘어 거의 매일 슈쿠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예약자가 많은 날은 수십 명에 이를 정도다.

고야산 혜광원(惠光院)은 구카이 사당이 있는 오쿠노인을 심야에 둘러보는 나이트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 유학을 다녀온 타무라 노부히로 스님을 비롯한 3명의 스님이 영어로 설명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인솔, 오쿠노인으로 가는 약 2km 참배길을 순례한다. 참배길엔 삼나무로 길이 나있고 수많은 묘비들과 공양탑, 오륜탑, 석불상 등이 늘어서 있다.

혜광원의 숙박자 중 약 60%는 외국인이다. 숙박료는 1박2일에 2식 포함 약 1~2만 원 선이다. 각 방에는 슈쿠보에서의 예절, 유카타 입는 법, 고야산 역사 등이 적힌 영어 안내서와 함께 영어로 번역된 불경이 배치돼 외국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타무라 노부히로 스님은 "외국인 투숙객들에게 불교 가르침을 쉽고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에서 온 앨리슨 웨버(54) 씨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슈쿠보에 머물렀다. 고야산에서 천천히 시간을 보내면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또 오고 싶다"고 웃어보였다.

한편 고야산슈쿠보협회에 따르면 고야산 내에 위치한 슈쿠보 52곳 기준 숙박 외국인은 2013년 1만9000명이었으나 2016년엔 약 5만6000명으로 약 3배 늘었다. 대부분 서양인 관광객들로 소셜 미디어(SNS) 영향으로 슈쿠보 문화가 널리 알려진 게 수요 증가의 주요 이유라는 설명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트럭운전사가 비구니 된 까닭은

노팅엄포스트, 비구니 스님 된 클레어 루딕 소개

영국의 트럭운전사가 비구니 스님이 돼 화제다.

영국 지역언론 노팅엄포스트는 최근 트럭운전을 하던 36세의 여성이 비구니가 된 사연을 소개했다.

클레어 루딕(36)은 6년간 40톤급 트럭을 운전사로 일했다. 어린 시절 기독교학교를 다녔던 그는 항상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

클레어 루딕은 "어릴 때 기독교 학교를 다녔지만 기독교신자는 아니었다. 10대 때는 무신론자로 살았다"며 "그러다 23세 때 우연히 맨체스터의 모임에서 불교를 접하게 됐는데 책을 읽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신선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상 마음속에 무언가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삶을 살길 갈망한 것"이라며 "마음을 비우고 삶에 충실하기 위해 매일 한 시간씩 명상을 하고 경전을 낭독하며 생활한다. 불교는 나의 삶을 바꿔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 2월 그는 셰링엄에 있는 안거행사에 참여 후 비구니 스님이 됐다.

일본식 선불교 전통에 따라 그는 삭발을 하고 검은 승복을 입었다. 그리고 오계(五戒)를 지킬 것을 발원했다.



클레어 루딕은 6년간 40톤급 트럭을 운전사로 일하다 최근 비구니 스님으로 출가했다. 사진출처=노팅엄포스트

처음 그가 삭발하고 비구니가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 깜짝 놀라 그에게 많은 질문을 했지만 곧 클레어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현재 그는 허크넬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선불교 명상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명상모임을 진행할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클레어는 "내가 사는 이곳에서 더 많은 문화적 활동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명상이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 내 목표"라며 "허크넬 지역의 사람들이 명상과 불교의 가르침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프랑스 선불교 사찰에 유럽 불자들 모인다

라종드호니에 사찰 개원 50주년… 유럽 각국 불자들 한자리 모여

프랑스 중부에 있는 선불교 사찰에 신도수가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프랑스 언론 라크로아는 5월 16일(현지시간) "프랑스 루아르에셰르에 위치한 라종드호니에 사찰이 최근 개원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어 유럽 각국의 불자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루아르에셰르에 위치한 라 종드호니에 사찰은 국제선불교협회(IZA)에 소속된 사찰로, 일본 선불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파인 소토선(Soto Zen)을 종파로 하고 있다. 1500년대 프랑스 경제 · 문화 · 정치적 중심지였던 루아르계곡을 따라 숲으로 들어가는 외진 지역에 있다.

또한 라종드호니에 사찰은 파리에 거주하던 소토선불교의 대표, 일본인 타이센 데시마루(Taisen Deshimaru) 스님에 의해 1979년 설립됐다. 1982년 타이센 데시마루 스님은 열반에 들었지만 소토선 불교는 프랑스와 유럽에서 점점 확장해 나갔다.

선불교는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숨쉬기, 걷기, 잠자기, 먹기 등 일상의 모든 것도 수행에 포함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침묵과 명상의 실천은 현대사회의 소란스러움과 격렬함에 맞서는 해결책으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프랑스불교연합 회장인 올리비에 왕젠은 "선종은 평온함을 되찾으려 하는 자연적인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종교"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500여 불자들이 도착했다.

요리사인 장 밥티스테 프레작(24)은 스님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는 학생시절 선불교가 폭력과 분노를 표출하는 자신의 고통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4년 전 나는 중압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폭력성도 띠는 성격이었다. 나는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기를 꺼렸고 매우 힘든 시간을 겪었다"며 "당시 나보다 30살이 많은 이복형인 장피에르가 사찰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에게 가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인생을 바꿔 놓았다. 내가 가진 모든 무지와 탐욕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올리비에 왕젠은 "종교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가톨릭 신자들이 선불교의 가르침을 배우며 일상생활에 적용, 영적인 차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종드호니에 사찰에는 매년 3000명의 사람들이 안거를 위해 방문한다. 지난 주말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찰을 개방해 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본 전통 북연주와 명상 워크숍 등을 열었다.



프랑스 루아르에셰르에 위치한 라종드호니에 사찰이 최근 개원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어 유럽 각국의 불자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출처=zen-azi

이보형 객원기자



부처님오신날 '베삭데이' 이색풍경 남방불교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도일, 열반일을 한꺼번에 기념하는 날인 '베삭데이'. 지난 5월 10일 남방불교권 국가에서 일제히 베삭데이 행사가 펼쳐진 가운데 미얀마 양곤 쉐다곤 파고다 사원에 방문한 한 커플이 베삭데이를 축하하는 초 공양을 올린 뒤 '셀피(Selfie; 셀프카메라)'를 찍고 있다. 사진출처=로이터

박아름 기자

"中, 11대 판첸라마 석방하라"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11대 판첸라마 겐둔치아키 니마〈사진〉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5월 17일 인도 다름살라에서 벌였다. 중국 당국은 1995년 달라이라마가 11대 판첸라마 환생자로 지목했을 당시 6세였던 겐둔 치아키 니마를 가택연금,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판첸라마는 티베트 불교에서 달라이라마에 뒤이은 2인자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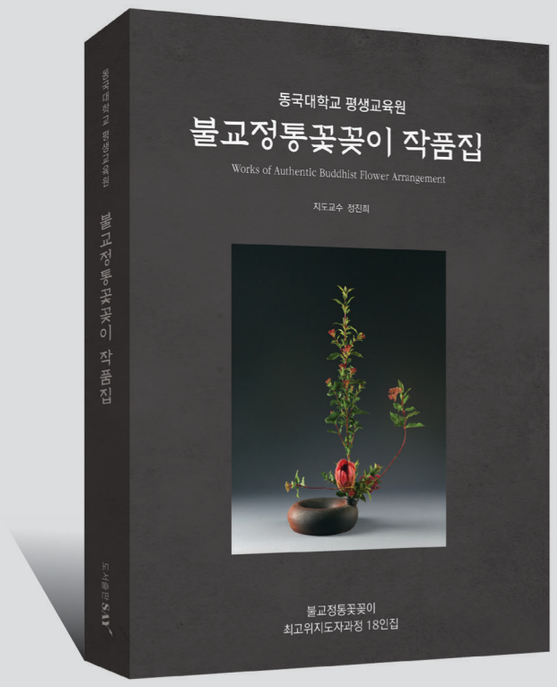
면발광 LED 인등



법당 영단 관욕단 장엄일체 수미단 닫집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동국대학교 불교정통꽃꽂이 최고위지도자과정 18인집
불교정통꽃꽂이 작품집
지도교수 정진희



사찰꽃꽂이를 하는 분들의 필독서!

- 법당꽃꽂이 80작품
- 영단꽃꽂이 20작품
- 관욕단꽃꽂이 12작품
- 선화(禪花) 12작품 〈선방·승방꽃꽂이〉
- 가격 50,000원

구입처 010-2720-9164 010-2002-2927